

# CA, ECU 약세로 대응책 2중화

## Pioneer, Tacoma 플랜트 재가동 불투명 ... Equapac은 220톤 건설

CA(Chlor-Alkali) 시장이 ECU 가격약세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미국 태평양 북서부 연안의 2개 생산 기업이 대조적인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Pioneer는 2003년 워싱턴주 Tacoma 소재 CA 플랜트를 재가동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플랜트의 Electrolytic Process에 필요한 전력 공급 및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CA 제품에 대한 적당한 고객베이스가 확보되면 재가동을 고려할 것이나 ECU 시장상황으로 볼 때 CA 시장이 지속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Pioneer는 2002년 3월 Tacoma 플랜트의 가동을 중단한 바 있다.

반면, Equapac은 워싱턴주 Longview에 Membrane-Cell 프로세스의 일산 220톤 CA 플랜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Equapac은 2003년 Weyerhaeuser로부터 12.5에이커 부지를 매입해 2004년 2/4분기에 착공해 2005년 4/4분기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Equapac은 미국 서부지역의 염소 수요강세에 힘입어 플랜트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는데, 미국 서부지역의 염소 수요는 연평균 3%대의 건설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생산된 염소는 Longview 지역의 수처리제와 관련한 정부기관 및 기업 그리고 펄프·제지 생산기업들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Equapac은 최근 서부지역에 부족한 염산(Hydrochloric Acid) 및 차아염소산나트륨(Sodium Hypochlorite)도 일부 생산할 계획이다.

Equapac의 신설 플랜트가 2004년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의 염소 시장 참여기업들도 새로운 경쟁기업을 주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염소 생산기업들은 서부 해안지역 CA 생산기업들의 최대 걸림돌인 가성소다 수입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데, 가성소다 시장이 제한적이어서 아시아 지역의 물량공세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서부해안 지역은 아시아 가성소다 생산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이나 서부해안 및 태평양 북서부 지역의 가성소다 수요는 제한적이다.

<화학저널 2004/09/23>